

TPP 타결에 대한 중국 내 평가와 대응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TPP 타결에 대한 중국 내 평가
2.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 평가
3.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과 대응전략

주요 내용 ●●●

■ TPP 타결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관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는 TPP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 표명
-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로서 ‘21세기형 FTA’가 될 것이며, 중국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을 배제하고 견제함으로써 TPP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 표명

■ TPP 타결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나, TPP가 확대될 경우 중국은 미가입에 따른 기회비용도 커질 것임.

- 중국의 미가입에 따른 경제성장의 기회비용은 1.35%(TPP 12)~2.2%(TPP 16)으로 추정
 - ※ TPP 16에는 기존 12개국에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이 가입하는 경우
- TPP 회원국은 중국 수출의 35.5%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일부산업(섬유, 의류, 식품, 자동차, 전자제품)에서 중국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임.

■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TPP가 확대되어 국제경제 질서를 재편하게 될 경우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위안화의 자유태환 실현 문제, 환율, 관세, 국유기업 사유화 문제, 환경보호, 노동자 권익, 지적권 등이 중국의 TPP 가입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상(RCEP, 한중일 FTA, 중ASEAN FTA Up-grade 등) 강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주변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적극적인 다자 무역·투자 편리와 참여를 통해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 재편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개혁 가속화 등을 통한 TPP 조건 충족 노력도 병행 예상

1. TPP 타결에 대한 중국 내 평가

가. 정부의 반응

■ [중국정부의 공식 반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TPP 협정은 아태지역의 중요한 협정 중 하나이며, 중국은 WTO 규칙에 부합하여 아태지역 경제일체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TPP 협정과 아태지역의 기타 자유무역 노력이 상호 촉진하고,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및 경제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간단히 언급함.¹⁾
- 중국은 TPP와 TTIP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상호 정보교환 통로를 구축하고 있음. 국제무역질서 구축에 있어 중·미 간에는 상호 의존도가 높아 향후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며, 상호 대치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을 전망이다.²⁾

■ [NDR 전문가 면담] TPP에 대해 중국정부는 관망 자세로 일관해왔음.

- 중국은 TPP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3不(不反對, 不支持, 不積極) 입장을 취하고 있음.
- TPP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나 음모가 아니며, 오히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환경보호, 노동환경 개선, 기술혁신, 국유기업 개혁 등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서는 2015년도 TPP 협상 타결을 예상하고 있었음.

나.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 TPP에 대한 긍정적 평가

■ TPP는 ‘자유무역협정의 2.0판’이라고 평가함. TPP의 특징은 단순한 자유무역의 범위를 넘어서 환경보호, 정부조달, 투자 등의 무역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임.

- TPP는 전대미문 최고 수준의 FTA로, 진정한 21세기형 FTA가 될 것임.

1) 「商务部新闻发言人就《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谈判结束表态」, <http://www.mofcom.gov.cn/article/ae/ag/201510/20151001126966.shtml>(검색일: 2015. 9. 6).

2) 「TPP谈判12国达成基本协议」, 『文汇报(上海)』, 2015년 10월 6일자.

- 개방의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FTA이며, 예외가 없는 고도의 자유화 수준의 FTA로서 95% 이상의 품목에 대한 '0'관세 실시(7년의 유보기간 인정)와 지재권·서비스·투자 등 각 방면 장벽의 대폭적인 삭감 등이 포함됨.

※ APEC 21개 회원국 평균관세율: 5.7%, TPP 회원국 평균: 4.5%, 중국: 9.6%.

- 무역과 기타 경제문제(상품과 서비스, 농산품시장 진입, 금융안정과 자본이동, 지재권, 국유기업, 정부조달, 노무, 환경, 경쟁, 전자상거래, 투자와 투자자 권익보호, ISDS 등)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FTA임(DRC 전문가 인터뷰).

■ TPP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정치적 목적이 공존하는 FTA임.

- △ 아태지역은 미국의 최대 교역대상지로서 수출 확대 등 경제적 이익이 크고 △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미국 자산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 최대 해외투자(전 세계 ODI의 20% 차지) 국가로서 미국은 ISDS를 통해 해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 환경과 노동 등 신 글로벌 무역질서 형성과정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 아태지역 개도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경제·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협정임.
- 일본은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가입하였으며, 베트남의 가입으로 개방의 수준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간섭에 대해 견제하려는 목적임.

■ TPP의 중국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는 향후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임(투신환, 대외경제무역대학 WTO연구원 집행원장).

다. 국제관계 측면에서 평가: TPP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일부 언론에서는 국제관계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TPP는 결코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TPP 협상의 투명성 결여 문제를 집중 보도하기도 함.

- TPP는 무역협정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담은 경제현장의 성격을 지닌 문건임(『중국경제망』, 2015. 10. 6).
-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30여 건의 FTA 협정 중 미국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TPP였으며, 그 이유는 △ TPP는 WTO 도하 협상의 실패에 대한 대안 마련 △ ‘아태주의’로 ‘동아주의’를 대체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경제일체화 추진, 동아시아의 기적의 보너스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동아시아의 세기’를 ‘미국의 세기’로 바꾸는 등의 일석삼조를 노린 협정임.
- 미국은 처음부터 중국을 TPP 협상과정에 참여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함(李长久,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

- 중국 내 여러 전문가들은 TPP가 미국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의 실행을 위한 중대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함(『제일재경일보』, 2015. 10. 8).³⁾

■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무역대국인 중국이 배제됨으로써 개방성을 상실했으며, 중국을 배제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함.

- TPP는 “사실상 어느 정도 개방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태평양 서안의 최대 무역대국(중국)을 배제한 것으로 개방성을 상실한 것이며, 이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함. 따라서 “불완전한 跨태평양 무역협정”으로 중국에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장함(杨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원).
-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한다면 TPP 협정의 의의가 반감된다고 주장함(周世俭, 칭화대학 중미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이와 관련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관련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일본 포함) 미국의 무역총액은 4,000억 달러에 이르는 반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총액은 6,000억 달러로 더 많은 편이라는 점을 지적함. 또한 미국의 전체 수출액 중 대중국 수출액이 10% 안팎인 반면, 대일 수출액은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 배제 구상이 비현실적임을 강조함.
- 중국이 TPP 협정에 가입한 대다수 국가들에 가장 큰 무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TPP를 통해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는 구상은 비현실적임(梅新育(梅新育)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
- 중국과 인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TPP가 국제적인 무역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임.

2.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 평가

1) 거시경제 영향

■ 중국의 TPP 미가입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이 불가피함.

- 중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가입국의 수에 따라 중국의 GDP는 매년 1.21~2.0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표 1 참고).

3) 「TPP重构世界贸易版图 中国淡定应对」(2015), 『第一财经日报』.(10月 8日)

표 1.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연구

연구자	경제성장 효과	분석 조건
马骏·肖明智 (2015)	미가입(TPP15): -0.14% 가입시(TPP16): +2.01%	TPP 16(TPP 12+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가정, 과도기 4년
彭支伟·张伯伟 (2013)	미가입(TPP12): -0.14% 가입시(TPP13): +1.21%	TPP 13(TPP 12+ 중국) 가정
金中夏(2015)	가입시(TPP16): +1.87%	TPP 16 가정, 과도기 4년

자료: 각 연구보고서 정리.

- TPP 12개국에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이 가입하는 대TPP(TPP 16)가 될 경우, 중국의 TPP 미가입에 따른 4년간의 기회비용이 GDP의 2.2%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马骏, 중국인민은행 연구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 TPP 16을 조건으로 4년간 누계 GDP 증가분은 한국이 2.2%로 가장 많고, 베트남 2.1%, 중국 2.0%, 일본 1.3%, 호주 1.2%, 미국 0.2% 순으로 추정
- TPP 12개국에 중국이 가입하는 TPP 13을 조건으로 한 분석에서는 중국의 TPP 미가입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GDP의 1.3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彭支伟, 张伯伟 2013).

표 2. TPP의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

	彭支伟·张伯伟(2013)				金中夏(2015)
	TPP 12	TPP 13	기회비용(B-A)	FTAAP	
경제성장(%)	-0.14	1.21	1.55	1.86	1.87
복리후생(억 달러)	-40.58	194.45	235.03	252.11	-
수출(%)	-0.32	6.68	7.20	10.78	9.05
수입(%)	-0.53	8.69	9.22	14.91	11.26
무역조건	-0.22	-0.08	0.14	-0.9	-
무역수지(억 달러)	9.63	-57.02	66.65	-145.58	-

주: TPP 13 = TPP 12+ 중국, 金中夏(2015)는 TPP 16 기준.

자료: 彭支伟, 张伯伟(2013); 金中夏(2015).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은 TPP 회원국간의 발전단계 차이로 인해 최종 단계에서 개방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TPP 미가입으로 인한 중국경제의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함.

2) 중국의 수출에 대한 영향

■ TPP 회원국이 중국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중국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함.

– 중국의 수출에서 TPP 가입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한국은 32.8%), 중국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7%(한국은 31.9%)를 차지하고 있음.

※ TPP 16의 경우 중국 수출의 42.9% 차지

표 3. 주요 경제권의 전 세계 GDP · 수출입 및 한국과 중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2014년)

(단위: %)

	인구	GDP	세계 상품수출	세계 상품수입	중국 수출	중국 수입	한국 수출	한국 수입
전 세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JK	21.2	21.0	18.9	17.4	10.7	18.0	31.0	27.4
TPP	11.2	36.0	23.0	27.6	35.5	29.7	32.8	31.9
RCEP	48.0	29.0	28.8	27.8	26.4	41.8	50.1	42.7

자료: World Bank, CEIC로부터 작성.

■ 중국의 TPP 미가입에 따른 수출 감소는 가입국의 수에 따라 매년 최소 7.2~9.4%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표 2 참고).

– IMF의 진중샤(金中夏) 이사는 중국이 TPP 16에 가입하는 경우 중국의 수출은 9.05% 증가하고, 수입은 11.26%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彭支伟, 张伯伟은 중국이 TPP 12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수출은 0.32% 감소하고, 수입은 0.53%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 아태지역의 역내분업관계는 제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분업관계와 중국이 상당수의 참가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TPP의 무역이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중국은 NAFTA 회원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및 일본을 제외한 8개 TPP 회원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고, 잠재 회원대상국인 한국, 인도 등과 FTA 협정에 서명하였거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어서, 중국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임(DRC, NDRC 전문가 면담).

○ 중국은 TPP 회원국 중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ASEAN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ASEAN과는 FTA 협정을 Up-grade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표 5 참고).

■ 중국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 TPP는 섬유, 식품가공, 의류, 자동차 분야의 중국 생산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 미국시장에서 섬유와 의류의 베트남산 대체, 가전제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및 일본산으로 대체(경쟁) 가능성이 있음(장젠핑, NDRC 대외경제연구소 주임).
 - 중국의 섬유, 의류, 식품가공, 자동차 수출은 2~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제품, 비철금속제품 수출은 0.5~1.5%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彭支伟, 张伯伟 2013).

표 4. TPP의 중국 업종별 생산 및 수출입에 대한 영향

	생산(%)			수출(%)			수입(%)		
	TPP 12	TPP 13	FTAAP	TPP 12	TPP 13	FTAAP	TPP 12	TPP 13	FTAAP
곡물	0.1	-0.1	1.0	1.5	2.4	13.1	-3.7	31.3	33.6
동물성생산물	-1.2	1.5	2.5	-20.2	35.0	38.7	-2.7	32.8	35.7
농어업	-0.2	1.2	1.8	1.4	-0.9	0.4	-1.7	10.8	15.3
기타 농산품	-0.1	0.6	1.0	-0.2	2.5	8.5	-1.5	19.3	21.5
가공식품	-0.3	1.7	2.4	-2.8	13.2	18.1	-0.9	15.5	23.6
연료	0.2	0.0	0.3	1.6	4.4	15.7	-0.3	3.7	7.9
비연료광물	0.2	-0.3	0.4	0.4	2.8	5.9	-0.4	7.3	8.7
목재 및 종이	-1.3	3.2	2.8	-6.4	18.6	19.9	-1.3	15.4	24.3
섬유	-1.3	8.0	6.2	-3.0	21.7	27.7	-1.4	26.0	55.2
의류	-0.9	10.2	12.7	-2.0	17.3	23.2	-0.7	4.1	30.4
피혁제품	0.5	0.0	1.0	0.3	-0.2	1.6	-0.4	5.5	14.0
화학제품	0.1	-0.8	-1.6	-0.1	6.0	11.6	-0.6	8.2	14.2
철강	0.1	-0.9	-0.8	0.2	0.9	5.2	-0.6	6.2	11.0
비철금속	0.7	-2.3	-2.4	1.0	4.6	11.3	-0.7	6.2	10.6
금속제품	0.0	0.3	0.9	-0.3	4.1	7.4	-0.8	17.7	29.2
자동차	-0.5	-1.1	-1.1	-2.0	5.1	7.1	-0.9	13.1	17.5
기타 운송장비	0.0	0.4	1.8	0.2	6.2	10.4	-0.8	16.0	18.8
전자제품	1.0	3.7	7.3	1.1	6.8	12.6	0.3	5.9	10.1
기계설비	0.1	-2.1	-2.4	-0.2	2.8	7.2	-0.8	10.8	16.9
기타 공산품	0.1	0.4	0.9	0.1	1.3	3.0	-0.8	22.5	41.1
서비스업	-0.2	1.2	1.9	0.7	-1.7	-1.2	-0.7	2.6	2.8

자료: 彭支伟, 张伯伟(2013).

3) 중국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 중국경제에 대한 국제투자자의 신뢰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그러나 중국에 대한 FDI에서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이전 가능성(특히 일본기업)이 있으나,

현재는 시장을 중심으로 FDI가 이동하고 있어 시장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FDI 감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함.

- 아울러 미국과의 BIT 협정을 통해 TPP 미가입에 따른 대중국 투자감소 위험에도 대응이 가능함.

3.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과 대응전략

가.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

■ 현 단계에서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TPP에 가입하기 위해 중국이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커서 TPP 가입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임(DRC, NDRC 전문가 면담).
- 위안화의 자유태환 실현 문제, 환율, 관세, 국유기업 사유화 문제, 환경보호, 노동자 권익, 지적권 등이 중국의 TPP 가입의 장애요인임.

■ 그러나 TPP 회원국 중에서 중국의 중요한 교역대상국이 많아 향후 가입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상존함(NDRC 전문가 면담).

-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TPP가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제정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가입도 검토해야 할 것임. TPP 협정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대응할 예정임(NDRC 전문가 면담).
-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의 입장을 대표하는 주장을 지속해야 하며, TPP 가입 여부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대한 유불리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특히 TPP에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추가로 가입할 경우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임.
- TPP 가입에서 한국과 중국의 동시 가입 신청은 불가능할 것임. 중국은 한국에 비해 추가적인 개방 부담이 크기 때문임.

나. 중국의 대응전략

-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및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을 기반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RCEP에 박차를 가하고,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주변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해 갈 것임(NDRC 전문가 면담).
- 중국은 이미 ASEAN, 네덜란드, 한국 등 주요 아태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TPP 체결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RCEP 협상을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해나갈 것임.
- RCEP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포함되어 있고 TPP 회원국 중 7개국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발전적인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
- RCEP과 10+3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에 대응이 필요하지만, TPP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동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음(NDRC 전문가 면담).
- 다만 TPP의 농산물 개방은 RCEP 협상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이외에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FTA와 중ASEAN FTA 협정의 Up-grade를 통해 TPP에 따른 영향에 대비함.

표 5. 중국의 FTA 추진 현황(2015년 9월 말 현재)

단계	기 체결	협상 중	연구 중
대상 국가	호주(2016. 6. 서명) 한국(2015. 6. 서명) 스위스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페루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파키스탄 ASEAN 홍콩·마카오CEPA	GCC 노르웨이 한중일 RCEP ASEAN(10+1) Up-grade 스리랑카 파키스탄 2단계 협상 몰디브	인도 콜롬비아 그루지야 몰도바

주: 기타特惠무역협정인 아태무역협정 참여.

자료: 중국상무부 사이트.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구상 실행과 AIIB 운영을 통해 회원국간 산업협력을 가속화하여 중국 중심의 자유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해 나아가야 함.

■ 경제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를 제정에 사전 대비해야 함.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금리 및 환율 자유화 등 금융 개혁,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추진,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개혁 강화 필요
- TPP 타결이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실험구(상하이, 푸젠성, 광둥성),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도입 등 중국의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 (DRC 전문가 인터뷰)
- 미국과 EU와의 투자협정(BIT) 협상을 통해 중국의 투자제도를 개혁함.

■ 이외에 아태 전자상거래 협정, 아태 서비스무역협정(亚太服务贸易协定), 아태공정경쟁협정(亚太公平竞争协定) 등과 같이 다양한 형식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질서 확립 기도에 대응할 필요도 있음(张磊, WTO 중국초빙교수).

<참고자료>

- 彭支伟·张伯伟. 2013. TPP和亚太自由贸易区的经济效应及中国的对策: 《国际贸易问题》, 2013年第4期, pp. 83~95.
- 金中夏. 2015. 《全球化向何处去——重建中的世界贸易投资规则与格局》, 中国金融出版社.
- 「马骏·肖明智: TPP影响之量化分析」. 『上海证券报』, 2015年 10月 9日.
- 「TPP重构世界贸易版图 中国淡定应对」. 『第一财经日报』, 2015年 10月 8日.
- 「商务部新闻发言人就《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谈判结束表态」. 중국상무부 사이트.

작성자: 양평섭 북경사무소장/연구위원(psyang@kiep.go.kr)